

대학에서의 여성학 교육의 필요성

정진성/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배은경/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대학에서의 여성학 교육은, 고학력 여성들로 하여금 개인적 각성과 사회참여 욕구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그 장벽들까지도 변화시켜 나가도록 인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하나하나의 개인적 경험들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성(gender)체계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혀내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정치화를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회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1. 대학 여성학 교육의 발전

대학에서 여성학 교육이 왜 필요한가? 언뜻 어이없어 보일 정도로 이 질문은 새삼스러워 보인다. 우리나라 대학에 여성학이 도입된 지도 이미 20년 이상 시간이 흘렀고 거의 모든 대학에 여성학 관련 교양과목이 개설되어 인기를 끌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대학원 수준에서의 여성학 교육 역시 우후죽순처럼 파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1977년 이화여대에 최초

로 여성학 과목이 개설된 이래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대학에서 여성학이 파급되고 강좌가 개설되는 속도는 놀랄 만한 것이었다. '여성학개론' 혹은 '여성과 사회' 등의 강좌명으로 여성학 관련 교양강좌를 개설한 대학은 1985년에 24개, '90년에는 69개로 늘어났고 이제는 개설하지 않은 대학을 찾아보기가 오히려 힘들 정도이다. 최근에는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고려대 등에서와 같이 단순한 이론소개 수준의 개론강좌 이외에 정치, 경제, 과학기술, 사회정의, 건강, 철학, 역사, 문학, 예술, 미디어, 심리 등

주제별 쟁점별로 심도 있게 성(gender) 문제를 다루는 과목을 개설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원에서의 여성학 교육 역시 매우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1982년 이화여대 대학원에 처음으로 여성학과가 설치된 이래, 1990년에는 계명대와 효성여대(현 효성가톨릭대)에 각각 석사과정이 생겼고 이화여대에서는 박사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1996년 이후 여성대학원 혹은 여성학 협동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원 수준에서의 여성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이 급증하여 현재 한양대, 성신여대, 신라대(구 부산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등에서 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서울대에도 협동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대학 내에서 여성학 연구·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할 '연구소'의 설치도 매우 활발하여, 1977년 이화여대의 한국여성연구소로 시작으로 많은 여자대학에 여성연구소가 설립되었다.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세칭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남녀공학 대학에도 연구소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화여대에 기존의 연구소와는 별도로 아시아여성연구센터가 설립되는 등 연구 기능이 분화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성학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대학에서 여성학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여성학 연구나 여성학 교육의 필요성은 이미 광범한 동의를 얻은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토록 많은 대학이 여성학을 수용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찬찬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점이 많이 발견된다.

2. 과연 여성학 교육의 필요성이 합의되어 있는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의 여성학강좌 개설은 교수사회의 요구나 대학 행정당국의 추진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자 대학생들의 집단적 요구와 동아리 모임에서의 자생적 여성연구의 열기에 힘입은 바 컸다. 아카데미즘을 기반으로 한 학구적 열기라든가 기존 제도의 의사결정이 여성학 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기보다는 '80년대 학생운동의 세례를 받은 열혈 여학생들의 강력한 요구를 소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한국 대학의 여성학 도입과정이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여성연구를 상아탑에 안주하는 안이한 학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성운동과 결합하여 전반적 여성 현실에 개입하는 역동적 학문으로 정립시킬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존 아카데미즘이나 대학제도에 대한 격렬하고도 진지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떠밀리듯' 여성학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대다수 대학구성원들에게 여성학적 문제제기를 충분히 공유시키고 탄탄한 제도적 뒷받침을 끌어내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부실하지 않았던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그간 여성학 연구가 보여준 학문적 성과와 사회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대학구성원들 사이에 여전히 '여성학이 학문이나'라는 식의 생각이 암암리에 존재하고, 여성학 교육에 대해 호의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가령 여성학은 여학생들에게는 필수 교양이지만 남학생들에게 수강하라고 요구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볼 때에 이런 점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여성학 교육이 급속도로 파급되는 와중에도 대학구성원들이 가진 기본적인 태도도 그리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역으로 대학구성원들이 가진 태도가 눈에 띄게 변화하지 않았는데도 여성학 교육이 급속도로 파급될 수 있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여기에 게토(ghetto)화나 타자화의 논리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만에 하나, 많은 대학당국들이 보이고 있는 여성학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 여자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자기들끼리 잘 해보라고 명석 하나 깔아주겠다는 식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깔려 있다면? 그것은 혹여 대학의 여성 구성원들을 ‘나와는 다르지만 자기들끼리는 동일한’ 타자들로 생각하면서 그 타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활동 범위를 내어줌으로써 그들이 차지할 합법적 공간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심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여성학이 학문이라거나 여성학 교육이 대학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진지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지 여성들이 그 동안 억압받아왔으니까 여자들끼리 할 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여성학 강좌를 열어 주는 것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여성학은 남성에 대한 투쟁의 담론이며 여성학 수업은 그간의 여성억압에 대한 한풀이 시간이라든지, 잘 해보야 여학생들에게 기존의 남성중심적 질서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는 씩씩한 여성 인력으로 키워내는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여성학은 ‘여성들만의’ 문제제기가 되며 여성학을 수강하는 남학생이나 성(gender) 문제에 관심을 갖는 남자 교수는 예외적인 존재로 치부되어 버린다.

단지 여성학이 유행이라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육도 시장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학 강좌를 개설한다는 정도의 피상적 필요성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여성학 교육의 필요성은 단지 경제학적 ‘수요’, 즉 여성학을 수강하려는 여학생의 수가 많다는 것만을 이유로 정당화된다. 만일 여학생의 수가 줄거나, 혹은 여학생이 수적으로 증가하더라도 강고한 성별 위계질서 앞에 좌절하여 여성학적 문제의식 자체를 회피하려는 분위기가 생기면 가차없이 없어져도 되는 것이 여성학 강좌라는 식의 의미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1997년말 IMF 관리체제가 터진 이후로 구조조정의 물결이 대학 사회도 휩쓸면서 여성학 강좌의 강의여건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다른 인문 사회 계열의 과목과 마찬가지로 여성학도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강좌로 낙인찍히면서 강좌 수 축소의 주된 과녁이 되었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간강사의 수를 줄이면서 아예 폐강하거나 또는 전공과 무관하게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 전임교수에게 강의를 떠맡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여학생 수의 증가나 미래 여성인력의 필요성 등을 전거로 여성학 교육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임교수 확보나 전공과목 개설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처음으로 되돌아가 대학 내에 여성학 교육의 필

요성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따져보는 것이 긴요할 것이다.

3. 대학에 여성학 교육이 자리잡기까지 : '70년대 말~'80년대 초

여성학 교육이 게토화·타자화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관찰되기 시작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여성학 교육이 대학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 당연시되기 시작한 최근의 일이다. 여성학 교육의 초창기, 즉 '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는 오히려 여성학이 사회구조가 가진 보편적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로 표상되었다. 이 시기는 민주화와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대학의 주류 문화로 자리잡은 시기였으며, 또한 대학에 다니는 여성의 수가 급증한 시기이기도 하다.¹⁾ 학생운동의 물결 속에서 사회현실에 대한 민감성과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추게 된 여학생들은 곧 그들의 현실 인식을 자신이 처한 성적 위계관계에 비추보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레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아무리 학생운동이 거셌다 하더라도 만약 여학생의 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이것이 여성학에 대한 요구로 연결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대학 내에 절대적 소수자로 존재했던 이전의 여학생들은 설사 성차별을 느낀

다 하더라도 이것을 '여성학'이나 '여성운동'이라는 출구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없었다. 대학이 남성사회임을 알게 모르게 인정된 위에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여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적응을 못하고' 외톨리로 돌다가 조용히 졸업하느냐 하는 양갈래 길밖에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여성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집단 전체가 겪는 곤란임을 깨닫고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런 문제를 소통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의지할 만한 동료 여학생의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의 일이었다. 여성학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먼저 터져나온 곳이 여자대학이었다는 것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이렇듯 여성학 교육에 대한 요구는 대학 교육의 대중화와 여자 대학생의 증가, 학생운동의 대학 내 주류화 등이 맞물려 제출된 것이었다. 여성학은 개설되자마자 곧 최고의 인기 교양과목이 되었다. 국가와 자본과 계급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80년대 학생운동은 구조적 소외집단에 대한 관심과 '평등'의 이상을 적어도 대학문화 속에서만 큼은 삶의 잣대로 만들었으며, 이 잣대는 곧바로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에 의해 여성 집단이 겪게 되는 곤경과 성차별에 대한 공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새로이 소개된 여성학은 사회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권위주의와 보수주의를 발본적으로 지적해내었으며 불합리한 사회에 '적응'하기보다는

1) 이 시기 여자 대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흔히 졸업정원제 실시의 여파로 보기도 하지만, 이후 대입제도가 여러 번 바뀌면서도 여학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임시계도로 환원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60년대 이래 급격히 떨어진 출산력은 각 가정의 자녀 수를 급격히 감소시켰고 더불어 경제발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교육투자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적극적인 개입과 행동으로 사회를 고쳐나가라고 외쳤으며, '80년대의 진보적 대학생들은 곧 이 급진적 비판 학문에 매료되었다.

적어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대학 내에서 여성학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성을 타자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적었던 것 같다. 물론 당시에 여성학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흥밋거리나 화젯거리, 혹은 여학생 그 자체를 찾아 여성학 강의를 듣는 남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성(gender) 고정관념과 기득권에 집착하는 극히 보수적인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 구성원들은 여성학을 최소한 소외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깨달음의 계기로, 혹은 나아가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반성의 계기 정도로 받아들이었다. 여성학이 문제시한 것은 남녀의 대립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구조'였으며 대학 내의 남성들에게 여성학은 자신들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성들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여성학에 열광했고 남성들은 소외와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으로 여성학적 문제제기에 동참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성학은 급속도로 대학 내에 자리잡을 수 있었으며 점차 제도적 지원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학 교육이 제도화된 방식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여성학 강좌에 몰린 경이로울 정도의 인기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내내 여성학의 파급은 '교양과목'으로만 이루어졌다. 여성학이 독립된 하나의 전공으로 개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회과학이나 역사학, 문학 등 관련 학과의 세부 전공과목으로도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교수 총원이나 행정적 지원 역시 기대할 수 없었다. 자생적 연구집단이나 새로 생긴 여성학

과 대학원에서 문제의식을 키운 젊은 신출내기 여성 시간강사들이 분출하는 여성학 교육의 욕구들을 모두 감당해내야 했다. 그러나 대학원 수준에서 여성학도가 생긴 몇몇 대학에서 몇몇 전임교수들이 교두보가 되어 어느 정도의 제도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던 수준이었다.

4. '90년대

- 새로운 보수주의의 등장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90년대를 맞게 되었다. '80년대 말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는 곧바로 냉전구조의 붕괴로 이어졌고 암암리에 냉전구조에 의지하고 있던 '80년대의 거대담론들을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뜨렸다. 때마침 한국경제는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었고 이는 '87년 이후의 급격한 임금상승과 맞물려 한국사회를 소비자본주의의 모습으로 만들어갔다.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군부독재'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종지부를 찍었으며 독재 타도의 구호 대신 시민운동과 참여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지평을 형성해갔다. '신세대'니 '미시족'이니 하는 담론들이 '90년대의 '새로움'을 표상하는 기표로 등장하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페미니즘임을 자처하는 다종다기한 담론들이 무더기로 등장하였다. 대학 내에서는 민주화와 평등 대신 다원주의와 자유가 새로운 기치로 등장하게 되었고, (집단적) 해방의 수사학이 (다양성에 대한) 억압의 수사학으로 바뀌면서 학생운동이 주류를 이루던 대학문화의 성격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였다.

'90년대는 '80년대에 대거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성

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무장하고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으려 했던 그들이 부딪혀야 했던 장벽은 어마어마했다. 평등은 당위론이었을 뿐, 아이를 낳고 기르고 가족을 신체적 감정적으로 돌봄으로써 행복의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여성의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은 너무도 강고했다. 게다가 이 의무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런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스스로를 가치로운 존재로 위치 지우려는 여성들은 집밖의 세계에서 자기 자리를 얻기를 원하였으나 이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요구는 너무 가혹했다. 글로벌리제이션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늘어만 갔으며, 고루한 상사들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몇 배로 더 유능해야 했다. 외모와 성적 매력은 여성의 유능함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는 문화 속에서 성공하고 싶은 여성들은 화장술과 화술까지 익혀야 했으며 혹독한 다이어트를 감내해야 했다. 육아와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직장에 다니는 젊은 여성들은 말 그대로 “생활이 곧 전투”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여성들은 서서히 탈진해갔으며, '80년대 여성학의 당위론에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한편 여성들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자 서서히 여성들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남성들도 생겨났다. '90년대 중반도 넘어서고 서서히 경제위기의 조짐이

눈에 띄기 시작할 무렵,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은 것이 페미니즘이었던 것은 이것을 방증한다. 명퇴, 조퇴 등의 말이 귀에 익어가면서, 페미니즘이 여자들의 기를 너무 살려 놓았고 그래서 남자들의 기가 죽었다며 남편 기살리기를 외치는 담론들이 등장하였다. 이런 담론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한국 남성의 위기를 페미니즘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은폐하고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남녀관계의 문제로 축소시킴으로써 더 큰 권력의 문제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하였다. '90년대 초반에 대중매체와 출판·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한 페미니즘의 물결은 서서히 거품이 걸리기 시작했으며, 드디어 작년말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는 대중문화에서 페미니즘이란 말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새로 대학에 입학해서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 역시 이전 세대의 학생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남녀평등이라는 말이 그다지 낯설지 않은 이 학생들은 여성학 교육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시큰둥하다. 기초적인 페미니즘적 문제제기와 여성학적 지식이 대중매체를 통해 유통되면서 대학에서의 여성학 교육이 주는 신선한 충격과는 그만큼 감소한 것이다. 한편으로 불평등한 현실과 이에 맞선 여성들의 좌절에 대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그야말로 이들은 '듣기도 전에 식상해 있으며, 운동을 해 보기도 전에 패배해 있다'.²⁾ 한편으로 페미니즘의 문제제기가 일상화되면서 남자들도 이를 전혀 몰라서는 무식한 사람 취급받는

2) 조한혜정, “여대생 노트에 부쳐”,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가지 않은 길, 1997에 실린 추천의 글.

분위기가 발생하면서 남학생들의 수강 비율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 이들 중에는 그야말로 '여성의 권리 운운하는 집단에 대한 반감'으로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전투의식에서 여성학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성(gender) 체계가 남성들에게도 억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진지한 자세로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다. 전반적으로 불평등과 소외집단에 대한 관심은 매우 약화된 반면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80년대에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전반적 감수성이 여성학 교육에 대한 동인이 되고 사회구조에 대한 지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였다면, 최근에는 전반적인 개인주의화, 탈정치화의 흐름 속에서 거꾸로 자신의 '성'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반성을 통해 전체 사회의 불평등구조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일상생활의 정치가 관심사가 되면서 오히려 여성학이나 페미니즘을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남성 대학구성원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여성학 강좌들 역시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학점'을 따야 하는 많은 '교양과목'들 중의 하나로 치부되는 경향이 생겼으며, 여학생들 역시 여성학 강의에서 자기 삶의 나침반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5. 왜 '대학에서' 여성학 교육이 필요한가?

'90년대 여성들이 처하게 된 새로운 좌절과 보수주의의 도전 속에서도, 그러나 한국

여성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십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대학에서의 여성학 교육이 한국 여성들을 강하게 만든 것이다. 소비문화가 부추긴 상업적 페미니즘의 거품이 빠져가는 '90년대 말이야말로 저간의 여성학 교육의 성과가 더욱 빛나는 시기인 것 같다. 근거 없이 분위기로만 여성을 띄워준 패션 페미니즘에 비하여, 사회변화에 대한 열정과 진지한 학문적 성실성을 결합하려 노력해 온 여성학 교육은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다.

현재 여학생들이 아무리 보수화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는 '시집을 잘 가려고' 대학에 오지 않으며 자신이 배운 지식과 능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대학을 마친 고학력 여성들이 점점 더 많이 사회의 중요 부문에 진출하여 여성을 가로막는 통념 및 제도들과 싸우게 되면서 장벽들도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 한번 여성학 교육의 세례를 받은 여성들은 스스로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운동에 연대하게 된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할당제를, 평생평등 노동권을 위해 연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지 그 여성들 자신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글로벌리제이션은 여성을 새로운 사회의 인력으로 요구한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산업사회의 봉건적 중핵'이라고 부른 바 있는 성(gender)에 따른 노동분업은 개인에게 더 많은 이동성과 유연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산업사회의 자체의 논리에 의해 내파(內破)되고 있다. 핑크 칼라(Pink Collar)라고 불리우는, 더 유연하고 더 창의적이며

더 관계중심적이고 더 환경친화적인 여성들의 노동참여는 점점 더 그 사회의 경쟁력과 관련한 것이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대학에서의 여성학 교육은 고학력 여성들로 하여금 개인적 각성과 사회참여에의 욕구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바로 그 장벽들까지도 변화시켜 나가도록 인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대학에서 여성학 교육이 꼭 필요한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분위기로만 여성을 띄워주고 남성에 대한 적개심만을 유도하는 상업적 페미니즘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개인적 경험들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성(gender) 체계와 연관되어 있는지 밝혀내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정치화를 유도하는 여성‘학’이 갖는 힘 때문이다. 진지한 학문으로서 성 문제를 접하는 대학생들은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감수성을 갖추게 된다. 더욱이 이즈음과 같이 개인주의화와 탈정치화가 대학을 지배하는 때, 그래서 ‘지식인의 사명’이니 ‘대학인의 책임’, ‘민족’과 ‘민주화’ 같은 말이 빛바랜 플래카드 같이 느껴지는 이 시대에는, 여성학 교육이 대학생들에게 개인 범주를 넘어서는 사회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출구로서 갖는 의의가 더욱 소중하다 할 것이다.

한편 대학에서의 교육은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의 뒷받침을 받음으로써 개별 여성과 개별 남성의 소모적 싸움이 여성학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데올로기적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남성들에게도 여성을 타자화하고 페미니즘을 적대시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남성들 자신도 사회 전체의 성(gender) 체

계 속에 한 고리로 들어가 있고 그것이 양산하는 부담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여성과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은폐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선전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하나의 사회 현상이 그 자체로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한국 사회의 여성억압, 성(gender) 체계는 결국 한국 사회가 걸어온 역사 전체와 얽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민족문제, 계급문제, 민주화 문제 등과 분리될 수 없다. 성(gender) 체계에서 하나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은 그 불평등에 기대하고 있는 다른 불평등들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며 성 체계에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서의 여성학 교육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며, 특히 그 과정에서 대학이 맡아야 할 책임을 환기시키는 전제가 될 것이다.

6. 대학에서 ‘제대로 된’ 여성학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물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학 교육이 이러한 의의를 모두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여성학 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것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여성학 교육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부분 강사와 학생의 열정에 의지해 왔다. 전임 교수 충원이나 전공과목 개설 등 교육과 연

구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극히 적고 대학당국이 책임 있는 여성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도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강사의 열정과는 무관하게 외부적 상황에 극히 취약하다. 특히 최근 대학 내에 발생하고 있는 보수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학 교육이 부딪혀야 할 이데올로기적 지형은 더욱 험난해지고 있다. 대학교육과 우리 사회의 갈 길에 대한 비전을 가진 대학구성원들이 여성학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원하는 일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

정진성/서울대 사회학과와 동 대학원 졸업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덕성여대 사회학과 부교수, 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만남』(역서), 『식민지시기 여성노동의 변모』, 『일본의 신민족주의운동』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배은경/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대학 교육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를 줄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150-7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3448-3181, 783-3065, 팩스 : 783-3645)
info95@nownuri.net
kheri@hitel.net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 (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대학담론 (25장 안팎의 수필 형식)
- 나의 수업방법 (30장 안팎의 수업관 및 수업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 (30장 안팎의 대학 관리운영 혁신사례 등)
- 밖에서 본 대학 (12장 안팎의 대학 외부인사 수필 형식)

■ 참고사항

- 투고를 원하시는 경우, 원고의 내용과 목차 등을 간략히 적어 보내주시면 편집기획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 편집·기타 사유로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은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